



부처님께서 부정관(不淨觀)으로 무상과 고를 깨달았듯이, 병든 육신에서 나오는 땀이나, 피, 고름을 보는 것도 수행의 일환이다. 매주 행려병자들을 돌보며 자신을 점검하고 무량 공덕을 쌓고있는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팀.

# “지친 마음까지 씻어 드릴게요”

화가 없다. “땀이나 피, 고름 같은 것은 예사죠. 더럽다는 생각이 있으면 못해요.”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 이상의 봉사를 통해 저절로 터득한 것이지만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악취와 거친 병자를 달래며 목욕시키다 주먹으로 맞기도 했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은 환절같은 정성으로 환자들의 마음을 열어놓았고 이제는 “장가라도 뉘 만큼 깨끗이 씻어 드릴게요.” “보고 싶었죠” 하며 서슴없이 얘기를 주고받을 정도가 되었다.

모든 것을 깨닫고 있는 봉사자들은 행려병자들을 향한 기도를 통해 자기 수행을 점검하고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두 개의 조로 나눠 목욕실에서 목욕이 진행되는 동안 제일 나이가 많은 심영섭(66) 보살은 목욕탕에조차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병실을 다녀며 머리를 감긴다. 발톱도 깎아주고 몸 구석구석을 물 수건으로 닦아 주기도 한다. 오랫동안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상주 보살로 봉사를 해왔던 심 보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 특별한 것은 없다”고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한 두 번 봉사 이후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힘이 들다보니 새로운 인원은 보충되지 않고 3년 전부터 고정된 봉사자들만 있을 정도다.

평균 연령 50대를 훌쩍 넘겨버린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회 목욕봉사팀은 자칫 줄 모르는 신심으로 이 일을 해 나갈 것이다. 자신을 거리에 내팽개친 사람들의 슬픈 사연과 고통이 말끔히 사라질 때까지.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 (0511607-2954  
천미희 기자 mhicheon@buddhania.com

##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 회향은 실천의 완성

지난 8월, 팔순의 신행민 강태원 씨가 평생 모은 재산 250여만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가족들도 몰랐다는 강 씨의 신행은 장안의 화제가 됐다. 강 씨는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잠이 잘 올 것 같다”는 말로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故 김영한 보살이 98년 법정 스님에게 부지와 요청 대원각을 시주,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청정도량으로 거듭났다. 김 보살은 생전에 누렸던 부를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지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몇몇 하지 못한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회향한 일이기도 했다.

## 12월-회향의 달

- 회향은 실천의 완성
- 나에서 너, 너에서 우리로
- 아름다운 마무리
- 회향, 새로운 시작

기와 과정도 회향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지니게 된다.

서울 강남 봉은사의 연꽃시니어 봉사단 33명의 64~80세 노인들로 구성된 이 모임은 지난 2월 창립 이후 ‘음식물 쓰레기 없애기 운동’,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작은 보시 큰 자비운동’, 무의탁 독거 노인들을 찾아가는 ‘푸른하늘 보여주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직장을 퇴직하고 가정일에서 손을 떼지 않았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한 이들의 활동에는 그동안의 삶을 원숙하게 회향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숨어있다.

김상인 단장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받기만 하다가 베풀 수 있어 환

## 아름다운 회향, 삶의 가치 빛내 탐내는 마음없이 공덕 이웃에게

‘백일기도 회향’ ‘법종봉사회’ ‘천일정진 회향’ ‘회향문’ 등 ‘마무리’의 의미를 담고 있는 회향이라는 말은 자신이 스스로 쌓은 선근 공덕을 다른 중생에게 베풀어 지자가 함께 불교를 이루려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 또는 자신이 가진 재화, 법, 은혜, 서원 등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보시인 것이다. 특히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에게 회향하는 보살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회향은 사회를 맑게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웃과 중생을 위해 무언가를 베푸는 세상은 더욱 아름답힐 수 있다. 때문에 잘못된 동

회심이 든다. 봉사단에서의 활동은 평생을 각박하게 살아온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면서 “평생을 나와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여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고 싶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개인적인 수행과 더불어 베푸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 불자들은 궁극적으로 회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중생에게 회향하는 마음으로 베풀되 나를 위하여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따라 보시하면서도 아끼거나 탐내는 마음이 없어, 자기 지은 공덕을 이웃에게 돌린다.” (증일아람경) 박봉영 기자

## 바라밀현장 부산시립의료원 ‘목욕봉사팀’

필요일이면, 부산시립의료원의 행려자 병동이 분주해진다. 거동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없는 행려병자들이 목욕실 앞으로 옮겨지고 앉혀 마를 두른 보살들이 목욕준비로 바쁘게 오간다. 월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행려병자들을 목욕시

켜주는 7명의 보살들은 부산시립의료원 법당 봉사회의 목욕봉사팀. 이들은 월·목요일은 행려자 병동에서 수요일은 일반 병동에서 목욕봉사를 하고 있다.

바가지, 비누, 의자, 비닐 등을 챙기고 목욕물을 받으면 준비 완료. 그 다음부터는 땀, 냄새, 분비물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알뜰 중독, 정신적 문제가 걸린 환자들이고 보니 거리를 헤매다 다리에 난 상처에서 구더

## 행려 병자를 부처님처럼 공경 병자향한 기도, 수행점검 계기

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야 병원에 실려오는 환자도 있을 정도다. 기어나오는 구더기를 치우며 환자를 씻길 때 격을 어뢰운은 상상하기조차 힘들다. 11월25일에도 목욕을 시작하자마자 치매인 70대의 할아버지는 연신 설사를 했다. 그러나 봉사자들의 손놀림이나 표정엔 전혀 변

의식이 맑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않는다. 행려병자들을 부처님처럼 공경하는 것이 이들의 원력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돌은 도를 좋아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 어떤 사연으로 입원하게 되었는지



## ‘목욕봉사팀’ 강성봉 보살 봉사상 거절, 행려자 옷 요청기도 불자들 후원등 포교 뒷받침 시급

굶을 수 없는 마약처럼 96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봉사의 외길을 걷고 있는 강성봉 보살은 ‘봉사대장’

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제대로 된 봉사를 하기 위해 불교공부를 시작했고 지금은 신심있는 불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집에서 108배로 시작하는 2시간의 기도를 하고 있는 강 보살은 7~8년의 결핵이 봉사를 해오면서 45명의 고승 회원을 확보했고 중앙공급실, 수술실, 의무기록실, 안내 등에서 체계적으로 봉사를 펼치고 있다.

얼마전 봉사상 수여도 마다하고 행려자 병동 환자들을 위한 옷을 요청했을 정도인 강 보살은 “보다 많은



무의탁 노인들에게 대중공양을 제공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구로중앙복지관의 자원봉사자 어르신들.

여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느 고행자가 자기 스승의 말만 믿고 벽에 붙어 있는 고행을 하고 있었다. 그의 스승은 이렇게 평생을 벽에 붙어 있다 보면 언젠가는 모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스승의 말대로 벽에 붙어 살던 고행자는 어느 날 자신도 이제 늙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는 언제쯤이나 진리를 알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중이 생겼다. 그는 신에게 기도를 했다.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이와 같은 고행을 해야 진리를 알 수 있는지 그 답을 달라고

했다. 어느 날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구도자여, 저 앞의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의 잎사귀가 보이느냐.” 고행자는 보인다고 말했다.

**마음비추기**

앞에 있는 나무는 아주 무성하여 그 잎의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신은 말했다. “저 나무 잎사귀의 수효만큼의 생애를 지금처럼 고행을 하며 살아가면 그 때 너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고행자는 감격하여 신에게 말했다. “오, 신이시여, 겨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끼는 바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급한 성격을 지닌 국민도 드물다. 뭐든지 ‘빨리빨리’ 마저 조금씩 걸린 사람들 같다. 운전승관은 말할 것도 없고, 밥 빨리 먹는 습관 때문에

**‘빨리 견성’ 집착은 병**

위장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라간 엘리베이터도 채 기다리지 못해 걷는 버릇들을 있는 대로 늘려낸다. 느리더라도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하기 보다는 위험이 뒤따르더라도 빠르고 쉬운 길만을 가려한다.

이와 같은 습성은 수행을 한다는 불교인들에게서조차도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도량에 가면 입문한 지 3일 만에 회도가 타파된다고 하여 물러가는가 하면 아예 견성하게 하는 기적까지 등장했다고 신문에 광고가 날 정도이다.

금생에 반드시 도를 깨쳐야만 하겠다는 결심도 좋다. 그러나 부지런한 것과 급한 것은 다르다. 부처님은 부지런히 수행하라 하셨지 급하게 빨리 수행하라 하시지는 않았다. 부처님도 몇 겁의 세월을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으셨다 하지 않았는가. 寂然

# 중앙승가대학교 2003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본교는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법 제67조에 의해 종단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 조계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고교내신상적	필기(교리)고사	면접(인성)고사	합 계
40% (400점)	40% (400점)	20% (200점)	100% (1,000점)

### 신(편)입생 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	학과	일반전형 (60%)	특별전형 (40%)	비고
인문	불교학과	18	12	1
	역경학과	18	12	
사회	포교사회학과	18	12	1
	사회복지학과	18	12	
합 계		72명	48명	2명

※ 특차모집 합격자 및 정시모집 동일학군 타 대학 지원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용시자격 및 전형방법

□ 특별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3년 2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조계종 교육원에서 인정하는 강원 대교과(4년) 졸업(예정)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40%내에서 서류전형 및 면접(인성)고사로만 선발함

□ 일반전형

◇ 지원자격  
조계종 승려로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2003년 2월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위의 학력을 갖춘 타 종단의 승려로서 해당 소속 총무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전형방법  
입학정원의 60%내에서 다음의 방법으로 선발함

◆ 원서교부 및 접수

◇ 장 소: 본교 교학처  
◇ 교부기간: 2002. 12. 2 ~ 12. 13  
◇ 접수기간: 2002. 12. 10 ~ 12. 13 (17:00까지)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2)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1부  
① 대입경 정고시 합격자: 합격증 사본과 성적증명서 각 1부
- 3) 고교생활 기록부 사본 1부: (2003년 졸업예정자포함)
- 4) 성적증명서 1부 - ① 타 종단 승려는 해당 총무원에서 발급
- 5) 강원 대교과졸업(예정)증명서 1부: 특별전형지원자에 한함  
※특별전형 지원자는 강원졸업확인서를 조계종 교육원에서 일괄 조회함
- 6) 주민등록 등본 1부
- 7) 사진(대가사 수한 반명함판 3×4cm) 5매 제출(3매 원서/2매 별도)

◆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 1) 원서대 및 입시요강: 3,000
- 2) 전형료: 60,000

◆ 전형일정

◇ 예비소집(특별 일반전형): 2003. 1. 21(화) 09:00 ~ 09:40  
◇ 필기(교리)고사(일반전형): 2003. 1. 21(화) 10:00 ~ 11:10  
◇ 면접 및 인성검사: 2003. 1. 21(화) 12:30  
※ 수험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비소집, 시험, 면접을 하루에 마칩니다.

◆ 기타

① '03학년도 신입생은 전원 수행과 임방 생활을 하여야 함.  
단, 편입생 및 타종단 지원자는 수행과 임방을 할 수 없음  
②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중 '03학년도 사미(니) 편입생은 졸업 후 구족계 수지자격을 받을 수 없음

### 편입생모집요강

◆ 모집학과 및 정원

계열구분	학 연	전산코드	학 과	모집인원
인문	3학년 (일반편입)	13	불 교 학 과	
		23	역 경 학 과	
		33	포 교 사 회 학 과	
	3학년 (학사편입)	43	사 회 복 지 학 과	
		14	불 교 학 과	
		24	역 경 학 과	
	34	포 교 사 회 학 과		
	44	사 회 복 지 학 과		

◆ 지원자격

◇ 일반편입: 대한불교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 승려로서 대학 2년이상 수료자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학사편입: 학사학위 소지 및 예정자로서 조계종 승남 만2년 이상인 자  
※ 타 종단의 승려도 위와 동등한 자격 및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편입지원 가능

◆ 전형방법 및 일정

신입학 전형일정과 같으며 편입생은 특별전형이 없음

◆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입시담당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中央僧伽大學校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 (031) 980-7713-7